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전문가들 “미 금리 12월에 이어 내년 3차례 예상”
- Bloomberg: 미 달걀 도매 물가는 경증...다른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

[미국 금융]

- WSJ: 트럼프 자문관들, 은행 감독기관 축소 또는 폐지 모색
- Bloomberg: 연방 국채 스프레드, 금리 인하 예상으로 플러스로 전환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호화 주택 시장 돌아왔다

[물류]

- WSJ: 미 제조업체, 관세 대비해 수입품 비축
- Reuters: 트럼프 관세, 미 트럭 산업 위협

[에너지]

- Bloomberg: 러시아 공급으로 주간 유가 급등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FinanceYahoo: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 이후 보험 업계 ‘저점’
- WSJ: 코스트코, 멤버십 인상으로 1분기 실적 증가
- WSJ: 달러 스토어, 저소득층 소비 상황이 좋지 않다고 경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to Cut Once More Before Slowing Pace in 2025, Economists Say **전문가들 “미 금리 12월에 이어 내년 3차례 예상”**

- 블룸버그 뉴스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 관리들이 올해 12월에 세 번째로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인하 회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에는 금리가 0.25% 내려 4.25%~4.5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3개월 전과 달리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단지 세 차례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가 연준 목표인 2%대로 둔화되는 속도가 진척되지 않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인플레이 지속, 경제와 금융 시장의 과열, 올해 초 소폭 실업률의 반전, 새로운 행정부의 인플레이 리스크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Jump on Eggs But Fed Categories Come in Soft**미 달걀 도매 물가는 경총...다른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

- 11월 달걀 관련 도매 물가는 예상치 않게 크게 상승한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 중에 다른 카테고리는 완만하게 상승했다.
- 어제 연방 노동청이 발표한 대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4% 상승했다. 다행히 서비스 물가의 주요 영역은 별다른 물가 변화가 없었다.
- 이 같은 도매 물가와 실업 보험 청구 건수 발표는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조치 전의 마지막 공식 경제 발표 자료였다.
-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는 물가 압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뜰이나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Trump Advisers Seek to Shrink or Eliminate Bank Regulators****트럼프 자문관들, 은행 감독기관 축소 또는 폐지 모색**

- 트럼프 인수팀은 워싱턴 DC의 최고 은행 감독 기관인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의 축소, 통합 또는 폐지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 트럼프 자문관들과 새로 신설된 연방정부 정부효율부의 관리들은 은행 감독기관의 잠재적인 지명자들과의 인터뷰에서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이들 고문들은 FDIC와 연방 통화감독국 지명 후보자들에게 예금 보험 업무가 연방 재무부에 흡수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 이 같은 FDIC의 폐지 방안은 연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WSJ 기사

Bloomberg: Key Treasury Spread Turns Positive With Fed Rate Cut in View**연방 국채 스프레드, 금리 인하 예상으로 플러스로 전환**

-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3년물 금리를 상회했다.
- 12월 18일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4.25%~4.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 국채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금리가 오늘 오전에 4.3%로 하락했다.
-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 이래 미 은행 부실 사태로 투자자들이 놀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 반면에 장기 국채 금리는 5일 연속 상승해 10년물 금리는 거의 4.37%에서 거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Bloomberg: The New York Luxury Housing Market Is Back**
뉴욕시 호화 주택 시장 돌아왔다

- 뉴욕시의 돈 많은 엘리트들은 지난 수년 동안 고급 거주지를 찾을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왔다고 말한다.
- 뉴욕시 주택 시장은 이들 구매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주택 비용도 낮아지고 새로운 개발업자들이 잠재 고객들에게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용자 금리도 안정된 수준이다.
-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매물로 나와 있던 웨스트 빌리지의 타운하우스가 갑자기 11월에 구매 열기가 있었다. 그리고 개발업체 Naftali 그룹에 세운 3개의 새로운 콘도도 예약이 붐볐다.
- 11월 고급 주택 시장은 3년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월에 5백만불 이상의 주택 구매 건수가 90건이 되어 지난 10년간 세 번째로 좋았던 11월 주택 시장이었다고 주택 브로커 Corcoran은 밝혔다.

Bloomberg 기사

[물류]**WSJ: U.S. Manufacturers Are Stocking Up on Imports Ahead of Tariffs**
미 제조업체, 관세 대비해 수입품 비축

- 미 제조업체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부과할 새로운 관세에 대비해 수입품과 원자재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최대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었다.
- GEP와 S&P Market Intelligence의 2만7천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북미 제조업체들의 11월 구매 활동은 지난 1년여 기간 중에 최고치를 보였다.

- Markus 그룹의 소유주 Mark Boone은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을 두 배로 늘렸다. 그는 “비용을 60% 이상 인상하면 고객들이 떠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GEP 컨설팅 담당 부사장 John Piatek은 “미 제조업체들은 경쟁업체가 더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보다 먼저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완전 철수는 힘들지만,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새로운 추가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 전미 소매업 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최근 미국 수입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봄까지 컨테이너 운송이 급증할 것이다. 특히 몇 달 동안 자동차 부품, 전기 부품, 가공 금속 제품이 많이 수입될 것이다.

WSJ 기사

Reuters: Trump tariffs endanger struggling US trucking industry, experts say

트럼프 관세, 미 트럭 산업 위협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트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미시간 주립대 경영대학 공급망 관리학과 임시 학과장인 Jasson Miller는 “관세 인상은 가격 인상을, 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를 부른다. 수요 감소는 화물 감소와 같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운송 회사가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Reuters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Set for Weekly Jump on Russian Air Strike, Sanctions Outlook

러시아 공습으로 주간 유가 급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4달러로 주간 4% 가까이 상승했다.
- 어제 목요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세계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 시장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FinanceYahoo: Health insurance industry 'laying low' in aftermath of UnitedHealthcare CEO shooting****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 이후 보험 업계 '저점'**

- 12월 4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Brian Thompson이 총격을 당했다. 뉴욕 경찰은 총격을 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용의자 Luigi Mangione는 보험 업계가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 업계가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특히 Medicare and Medicaid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32%로 업계 평균 17%보다 훨씬 높았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약 14%의 상업용 보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Eleccance(12%)와 CVS(11%)가 잇고 있다.
- 이번 사건을 보험 업계가 바뀔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Oscar Health의 CEO Mark Bertolini는 “이번 총격 사건은 보험 업계에 경고의 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낡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Costco Earnings Rise in First Quarter Following Fee Increase**코스트코, 멤버십 인상으로 1분기 실적 증가**

- 코스트코는 11월 24일 마감된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기 매출은 622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620억5천만 달러 예상을 넘어섰다. 이익은 18억 달러로, 작년 1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멤버십 수익은 8%, 온라인 매출은 13% 증가했다.
- 9월 1일부터 코스트코는 멤버십 가격을 8% 인상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4분기에 11억7천만 달러의 멤버십 수익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0억8천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었다.
- 중요한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들이 엇갈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월마트는 신학기 및 할로윈 시즌에 힘입어 좋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반면, 타겟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중해지면서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WSJ 기사

WSJ: Dollar Stores Are Flashing a Warning Sign About Lower-Income Consumers

달러 스토어, 저소득층 소비 상황이 좋지 않다고 경고

- 인플레이가 완화되고 임금이 올랐지만, 저소득층에겐 별 체감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소비자가 많은 달러 스토어는 이들이 올해 초부터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 애틀랜타 연준에 따르면 미국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이후 상당히 둔화됐다. 소매업 전문 HAS 컨설팅 대표 Haward Jackson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저소득층의 인플레이는 약 6.3%로 추정된다. 미니 애플리스 연준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비자 물가는 약 64% 상승했다.
- 저소득층은 지출을 조정할 여력이 없다. 그들의 지출 71%는 주거, 식사, 의료와 같은 필수 부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플레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또한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로 인해 금리도 오르면서 신용카드 이자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당선에 신흥국 통화 2년만에 최대폭 하락 전망 "미국외 투자대안 없어 신흥국 자산 매도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 등에 따른 미국 달러 가치 급등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이 산출하는 신흥국 통화 지수는 올해 10월 이후 두 달 반 동안 5% 넘게 급락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 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게 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